
2025.07.02.

XML 기반 조선 중기 한시 텍스트 구조 설계

- 주제 분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이예리

글로벌 한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의 접점

한시 데이터 베이스의 필요성

: 기존 고전DB의 한계

01

문집 및 문헌 단위의 구성
→ 작품 단위의 활용이 어려움

원전이 되는 문헌의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

02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데에
사전 지식이 필요함

어떤 문인, 어떤 문헌의 작품인지,
어떤 글자, 운자를 사용했는지 등
사전 지식 & 전문적 지식이 필요

03

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중심으로 확인하려면

특정한 작품을 알고 찾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주제, 내용을 찾으려면?

한시 텍스트 구조 설계

작품의 시제나 주제, 소재를 비롯하여
본문 내에서 사용된 전고, 시어,
운자 및 대장과 같은 구성에 대한 정보 등

외부 정보	출처 정보	문헌, 작가
	관련 정보	
내부 정보	기본 정보	주제 분류
		한문 제목
		부가 정보
	번역 정보	번역 제목
		작품 본문
		부가 정보
	구조 정보	형식
		자수
		대장
		평측
	인용 정보	전고
	시어 정보	의상

XML 기반 구성

```

<Poem id="LSGJBJ0002">
  <Metadata>
    <Title>直夜記夢</Title>
    <Preface></Preface>
    <Annotation></Annotation>
    <Collection xlink:href="Glossary.xml#지봉집"></Collection>
    <Author xlink:href="Glossary.xml#이수광"></Author>
    <Form>
      <Basetype>근체시</Basetype>
      <Detailtype>절구</Detailtype>
    </Form>
    <Charactercount>오언</Charactercount>
    <Themes>
      <Main>현달</Main>
      <Sub>기몽</Sub>
    </Themes>
    <Context></Context>
  </Metadata>
  <Text>
    <Line>....</Line>
  </Text>
</Poem>

```

어떤 정보가, 어떻게 특정되고

기계가독적 메타데이터로 조성될 수 있을지

→ **주제**의 층위에 주목

전통적 한시 분류

동아시아 한시사 내에서 여러 시학자들이 활용해 온 방식
형식뿐만 아니라 주제, 소재 등 저마다의 기준으로 분류, 활용



《문선》을 시작으로 하는 시선집,
특정 시대 및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편찬된 분문찬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볼 작품을
창작, 향유했던 당대 인물들이 활용했던 기준, 방식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증대

조선의 한시 분류와 《풍소궤범(風騷軌範)》

06

- 조선 전기 문신 성현, 권건 등이 중국의 시를 모아 1484년에 간행
- 전집 16권은 시체(詩體)로 편집하고, 후집 29권은 주제에 따라 분류
- 형식과 내용이라는 2분류 기준을 병렬적으로 사용함
- 조선 전중기 문인들이 한시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

《풍소궤범》의 주제 분류

유람류(遊覽類) → 지리류(地理類) → 천문류(天文類) → 절서류(節序類) → 궁실류(宮室類) →
현달류(顯達類) → 한적류(閑適類) → 우상류(憂傷類) → 연락류(宴樂類) → 기용류(器用類) →
문방류(文房類) → 도화류(圖畫類) → 회고류(懷古類) → 인품류(人品類) → 선석류(仙釋類) →
준동류(蠢動類) → 정식류(靜植類) → 기증류(寄贈類) → 송별류(送別類) → 회방류(懷訪類) →
잡부류(雜賦類)

《풍소궤범》

+

조선 중기를 전후로 하여 활용된 중국 시 선집

《매월당집(梅月堂集)》 : 주제 분류 적용 사례에 해당하는 개인 문집
 시어집과 《물명고(物名攷)》 등 어휘 분류
 = 天地人 혹은 왕후, 제후, 천자를 시작으로 하는 두 가지 분류 배열



현대의 사용자, 즉 한문학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의 문학 인식에 부합하고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주제 분류의 조정

● 주제의 중복 분류 적용

1개의 작품을 1개의 분류에 할당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물리적 서책 형태의 한계
→ 2개 이상의 주제 분류 할당

● 전통적 분류 추가

변새邊塞 / 염정艷情 / 기몽記夢 등
전통적 한시 분류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풍소궤범》에서 생략되어 있던 분류의 추가

● 천지+인의 2분류, 배열 순서 조정

‘천’과 ‘지’ 및 ‘동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천지’와 ‘인’이라는 대분류로
분류 체계 내에서도 유사한 항목끼리 배열

● 현대적 용어 변경

준동류, 정식류와 같은 분류명의 변경 (동물, 식물)
지리류를 산악山岳, 강해江海로 분류하는 등
《풍소궤범》의 소분류를 참조하여 분류 신설 및 변경

● 천지+인의 2분류, 배열 순서 조정



	天地						人													
주제분류	산악 山岳	강해 江海	천문 天文	계절 季節	동물 動物	식물 植物	유람 遊覽	기증 寄贈	송별 送別	회방 會訪	애상 哀傷	회고 懷古	변새 邊塞	엄정 嚴情	기몽 記夢	...	기용 器用	문방 文房	도화 圖畵	기타 其他
풍소궤범	지리	지리	천문	절서	준동	정식	유람	기증	송별	회방	우상	회고	-	-	-	...	기용	문방	도화	잡부



● 현대적 용어 변경



● 전통적 분류 추가

● 천지+인의 2분류, 배열



	天地								
주제분류	산악 山岳	강해 江海	천문 天文	계절 季節	동물 動物	식물 植物	유람 遊覽	기증 寄贈	
풍소궤범	지리	지리	천문	절서	준동	정식	유람	기증	

기화이초 천승씨가 들너 흥났네 / 草共瀟神宸
폭포수는 천척 높이 흘러내리고 / 瀑沫流千尺
짙은 구름 만겹으로 끼어 있구나 / 雲陰結萬重
삼시간에 진세 벗어 나왔거니와 / 倏然出塵外
신선을 혹 만날지도 모르겠구나 / 仙侶倘相逢 (1수)

● 현대적 용어 변경

● 주제의 중복 분류 적용

봄날에 중흥동에서 놀다 10수 [春日遊中興洞 十首]

중흥동을 향해 걸어 들어가면서 / 步入中興洞

고개 돌려 노적봉을 바라보누나 / 回看露積峯

기암괴석 하우꺼서 쪼개 열었고 / 岩奇開夏禹

기화이초 신농씨가 흘려 놓았네 / 草異漏神農

폭포수는 천척 높이 흘러내리고 / 瀑沫流千尺

짙은 구름 만겹으로 끼어 있구나 / 雲陰結萬重

삽시간에 진세 벗어 나왔거니와 / 倏然出塵外

신선을 혹 만날지도 모르겠구나 / 仙侶倘相逢 (1수)

시제를 통해 ‘春日’과 ‘遊’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람〉, 〈계절〉로 중복 태깅한다.

● 전통적 분류 추가

감사합니다.